

농민유토피아 ‘새하늘 새땅’을 향하여

-성경적 입장에서 본 농민복지-

이 종 록(교수, 한일장신대학교, 구약학)

농 민

구약성경은 농경사회를 배경으로 한다. 그래서 구약성경은 농민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성경이 복지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농민들에 대한 것이다. 물론 도시빈민들도 있었지만, 그들도 애초에는 농민들이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자기 땅에서 추방된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농경사회는 농민들이 대다수라는 사실을 말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결코 농민들이 대우받는 사회는 아니었다. 농경사회에서 농민들은 오히려 착취당하기 쉬운 하층계급이었다.

렌스키는 결론적으로 “농경사회를 관찰하는 모든 사람, 특히 폭넓은 비교적 관점에서 농경사회를 관찰하는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는 하나의 사실은 농경사회가 현저한 불평등 사회라는 점이다. 누구나 예외 없이 농경사회는 발달된 농업경제와 연관되어 권력, 특권, 명예상의 차별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별성은 아프리카와 신세계의 가장 계층화된 원예사회의 차별성보다 훨씬 심하며, 단순 원예사회나 수렵과 채취사회의 차별

성보다는 더욱 심하다”고 말한다. 렌스키의 이해에 따르면, 농경사회는 아홉 개의 사회계급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상층의 다섯 계급과 하층의 네 계급 사이에는 엄청난 격차가 있다. [John Dominic Crossan, *The Historical Jesus: The Life of a Mediterranean Jewish Peasant*, 김준우 옮김, 『역사적 예수-지중해 지역의 한 유대인 농부의 생애』 (서울: 한국기독교연구소, 2000) p. 115-116.]

상층계급은 통치자, 지배계급, 신하계급, 상인계급, 사제계급이고, 하층계급은 농민계급, 장인계급, 불결한 천민계급, 소모계급이다. 지배계급은 보통 인구의 1% 정도였지만, “얻을 수 있는 통계에 근거하여 볼 때, 지배계급은 대부분의 농경국가의 국가 수입의 적어도 1/4 정도를 받았으며, 지배계급과 통치자는 모두 그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신하계급은 대개 인구의 5%로서, 서기관들과 관료들로부터 군인들과 장군들까지 포함하여, 모두 “정치적 엘리트를 위해” 봉사하는데, 이들 정치적 엘리트에게 신하계급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계층이며 개인적으로는 소모품과 같은 존재들이다. 상인계급이 지배계급과 맞부딪치는 것은 권위의 차원에서라기보다는 시장의 차원에서이다. 상인계급은 아마도 하층계급으로부터 올라왔을 테지만, “거의 모든 발달된 농경사회에서는 상인계급이 상당한 부를 쌓았으며, 몇몇 경우에는 정치권력도 갖고 있었다.” 사제계급은 “농경사회에서 마지막 특권층이지만 그러나 그 세력이 남들에게 뒤쳐지지는 않는” 계급으로써, 예를 들어, B.C.E(기원 전) 12세기의 이집트에서는 전국 토지의 15%를 차지했으며, C.E(기원 후) 18세기의 프랑스에서도 전국 토지의 15%를 차지했다. (Crossan, p. 116)

한편 하층계급에 속하는 계급들은 우선 농민계급으로써, 이들은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국가와 특권층을 뒷받침하는 것은 평민들의 책임이었는데, 특히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민들의 몫이었다.” 구체적으로, “16세기 일본의 통치자였던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토지세 이외의 모든

세금들을 철폐하였는데, 그는 토지세를 모든 수확량의 2/3로 정하였다. 이런 사실은 아마도 일반적인 농경사회에서 정치 엘리트들이 모두 얼마를 가져갔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사례일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정치적 엘리트들의 대다수는 농민계층의 노동력을 거의 완벽하게 이용하려 했던 반면에 그들의 생활필수품조차 빼앗아갔다.”(Crossan, p.116-117) 이런 상황은 고대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땅

구약시대가 농경사회였다는 것은 땅이 그 사회를 규정지워 주는 중요한 개념이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구약성경은 땅에 대한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다룬다. 땅은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니었다. 삶의 공간이고 현상이었으며, 사람들은 땅을 떠나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거하는 소중한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곳이 아름답고 살기에 풍요로운 땅이라고 생각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의 결핍함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캐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네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 하리라(신명기 8:7-10)

하나님은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제비뽑기를 통해서 공정하게 분배해 주셨다. 아니,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다. 바벨론 멸망 후에 다시 세울 새 이스라엘에서도 땅은 출애굽 때 그랬던 것처럼 모든 지파에 골고루 배정하고, 그것은 양도

하거나 빼앗을 수 없는 기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 지계대로 이스라엘 십이 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분 것이니라 내가 옛적에 맹세하여 이 땅으로 너희 열조에게 주마 하였었나니 너희는 피차없이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에스겔 47:13-14)

그리고 왕도 자기에게 주어진 토지 이상을 소유할 수 없도록 했다.

왕은 백성의 기업을 취하여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왕이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니라 백성으로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에스겔 46:18)

이런 규례를 정한 것은 부정적으로 보면, 왕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암시한다. 우리는 그런 예를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사건에서 본다. 나봇은 자기가 소유한 포도원이 조상 대대로 이어온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조건을 제시한다고 해도 절대 그것을 팔 수 없다고 말한다. 물론 여기에는 아합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 즉 이스라엘의 반(反)아합 정서가 깃들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금하셨다는 것이 더 우선적이다.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레위기 25:23)

땅은 이처럼 상업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 하나님은 땅을 돈과 연결짓는 것 자체를 철저히 금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땅을 갖고 돈 놀음을 벌이는 것은 참으로 불경스럽기 그지없는 행위이다. 하나님은 땅을 소수 사람들이 독점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런데 그것을 감히 어기는 사람들이 있었다. 수많은 땅을 사들이거나 빼앗아서 대지주가 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농촌이 아니라 도시에 거주하는 소수의 '부재지주'였다. 그래서 농민들은 땅을 제대로 소유하지 못했다. 당시에 그런 일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실제로 이것은 농경사회에서 엄청난 범죄였다. 그러니 이런 짓을 한 자들을 예언자들이 그냥 둘 리 없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장로들과 방백들을 국문하시되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은 너희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맺돌질 하느뇨 주 만군의 여호와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리로다(이사야 3:13-15)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 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녕히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같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지기에는 간신히 한 예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찌기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그 귀한 자는 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며 음부가 그 욕망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연락하는 자가 거기 빠질 것이라 천한 자는 굴복되고 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공평하므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시므로 거룩하다 함을 받으시리니 그 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먹을 것이요 살찐 자의 황무한 밭의 소산은 유리하는 자들이 먹으리라(이사야 5:8-17)

이렇게 땅을 늘려서 대지주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는 게 구약성경의 가르침이다. 그런데 그들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도록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데 문제가 크다. 그들은 소수였지만, 사회적 부의 대부분을 소유했다.

산업사회 이전의 도시는 전체 인구 가운데 10%미만의 인구를 수용하여 직접 통제하였다. 이 10%의 도시 인구 가운데 2%미만이 엘리트, 혹은 상류층에 속했다. [Bruce J. Malina, *The New Testament World: Insights from Cultural Anthropology* (Atlanta: John Knox Press, 1981), 72. John Dominic Crossan, *The Historical Jesus: The Life of a Mediterranean Jewish Peasant*, 김준우 옮김, 『역사적 예수-지중해 지역의 한 유대인 농부의 생애』 (서울: 한국기독교연구소, 2000) p. 60에서 재인용]

이런 것은 에스겔 34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이스라엘을 그릇 다스린 목자들을 책망하고 벌주고, 상처 입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직접 구원하시겠다는 내용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책임을 목자들, 즉 지도자들에게 묻는다. 그들로 인해서 백성들이 상처를 입고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빠졌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목자의 자리에서 내쫓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백성들을 다스리시며 백성들에

게 평화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다.

목자들은 양을 잘 먹이고 지키는 것이 직무인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양을 잡아먹고 양이 어려움을 당해도 본체 만체하고, 양을 잃어도 찾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양들이 어려움을 당했다. 그들은 두 가지 어려움을 당했다. 하나는 목자들에 의해서 직접 이루어진 피해들이고, 다른 하나는 목자들이 그들을 돌보지 않음으로써 당하는 어려움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실을 적나라하게 밝힌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와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나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에스겔 34:2-3)

하나님의 지적은 직설적이다. 목자들에 대한 비판은 8절 하반절에도 나온다. 그들은 정말 변사또나 조병갑 같은 ‘탐관오리’들이다. 그들이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짐작할 수 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고통당한 백성들의 하소연이 나올 여지가 없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서 탐관오리들에 대해서 당시 민중들이 하고 싶어했던 말을 간접적으로 들을 수 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백성들이 하고 싶었던 말씀을 대신하시고 백성들이 하고 싶었던 행동을 대신하신다. 하나님은 그릇된 지도자들, 목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들의 압제를 받던 백성들을 위협으로부터 구해내시겠다고 말씀하신다. 당시 어려움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간절히 원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리고 또 그것이 에스겔의 마음이기도 하

다.

그런데 목자들이 해야할 일을 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할 일은 하지 않고 도대체 무슨 일들을 했단 말인가?

이스라엘 모든 방백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네 가운데 있었도다 그들이 네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네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네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으며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네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인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네 가운데 산 위에서 제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네 가운데 음란하는 자도 있었으며 네 가운데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네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에게 구합하는 자도 있었으며 혹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혹은 그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네 가운데 혹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구합하였으며 네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네가 변전과 이식을 취하였으며 이를 탐하여 이웃에게 토색하였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나 주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에스겔 22:6-12)

여기에 확연히 드러난 것처럼,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목자들이 하는 일이라는게 인권유린과 학대, 그리고 경제적인 범죄, 성적인 범죄들이다. 그들이 하는 행동을 한 마디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다.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사는 것’이다. 이러한 일들은 일반 백성들도 했겠지만, 주로 지도층 인사들, 즉 목자들이 저지르는 일들이다. 우리 시대에도 그렇지만, 그들의 이러한 죄로 인해서 일반 백성들은 얼마나 깊은 상처를 입었을까? 그들의 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23절부터 다시 날날이 지적된다. 그들의 범죄가 두 차례 공개되는 것이다. 여기서도 그들의 죄를 두 차례나 공개하시면서 그 지도자

들을 개망신시키고 그들로 인해서 깊은 상처를 입은 백성들을 치유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난다.

여호와와의 말씀이 네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배역함이 우는 사자가 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전채와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로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변치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변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 그 방백들은 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의의 이를 취하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술을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와의 말씀이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강포하며 늑탈하여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였으며 우거한 자를 불법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에스겔 22:23-29)

여기서도 앞부분과 동일한 범죄들이 열거되는데,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이런 짓들을 했으니 백성들이 어떻게 편안하게 살 수 있었겠으며 나라가 어찌 평안할 수 있었겠는가? 올바른 지도자들을 만나기는 예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어렵기는 마찬가지인 모양이다. 다른 예언자들도 동일한 이야기를 한다.

너희가 가난한 자를 밟고 저에게서 밀의 부당한 세를 취하였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심었으나 그 포

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중함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확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궁핍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아모스 5:11-12)

침상에서 악을 피하며 간사를 경영하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취하니 그들이 사람과 그 집 사람과 그 산업을 확대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와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 내리기를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히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니라 하셨느니라(미가 2:1-3)

이처럼 농민들은 그들을 위해서 세움 받은 자들로부터 착취를 당하며 살아야 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농경사회에서 지도층이 농민들을 착취할 수 없도록 강력하고 혁명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 한, 농민들은 계속 착취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렌스키와 울프 모두에게 있어서 농민 계급은 외부 권력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되는데, 그 외부 권력이란 도시이든, 국가이든, 아니면 제국이든 그 잉여농산물을 착복하는 집단이다. 이런 정의가 아직도 틀렸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울프가 보여주는 사례를 보면 알게 될 것이다. 그 사례는 “14세기와 15세기 사이에 독일 북동부의 메클렌버그에서 40 에이커 (약 162km²)의 땅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의 경우이다. 그의 1년 곡식 총생산량은 10,200 파운드 (약 4,590kg)였다. 그 중 3,400 파운드는 다음 파종을 위해 즉시 저장되었고, 2,800 파운드는 말 네 마리의 사료로 들어갔다. 나머지 4,000 파운드 중에서 2,700 파운드는 지주에게 토지 임대료로 들어갔다. 결국 그 농민 가족을 위해서는 단지 1,300 파운드만 남았는데 이것은 ‘1인당 하루

1,600 칼로리의 양'이었다. 1인당 하루에 필요한 칼로리의 양이 최소한 2000 내지 3000 칼로리이기 때문에, 그 가족은 다른 방법을 통해 칼로리를 보충해야만 했을 것이다. (Crossan, p. 29.)

구약시대 농민들도 이처럼 형편없는 삶을 살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농민들의 생계를 돕기 위해 구약성경은 철저한 세금 납부를 강조하는데, 과연 세금은 누가 내는 것인가가 문제다. 앞에서 본 것처럼,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가난한 농민들로부터 과도한 세금을 갈취했다. 그러나 구약성경은 농민이 아니라 사회지도계층이 세금을 내서 농민들을 도와야 한다고 말한다. 그들과 각 지역 유지들이 정확하게 세금을 내서 일정한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이를 통해서 하층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구약성경이 그토록 강조하는 삼대 절기, 즉 농사절기인 무교절과 칠칠절, 그리고 수장절은 사회복지적인 성격이 강하다. 이스라엘은 이 삼대 절기를 통해서 출애굽 정신, 즉 모두가 행복을 누리는 사회건설을 실현하려고 했다. 그리고 이런 출애굽 정신은 탐욕스러운 자본주의 정신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희년 사상에서 극에 이른다.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칠 년이 일곱 번인 즉 안식년 일곱 번 동안 곧 사십 구 년이라 칠 월 십 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제 오십 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오십 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밭의 소산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기업으로 돌아갈지라 (레위기 25:8-13).

자기 땅과 가족에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땅이 삶의 근거였던 농경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른다.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자기 땅과 가족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것은 그들을 다시 살리는 일이었다. 농경사회에서 땅을 떠난 농민은 죽은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짐작하는 대로, 이 희년사상이 제도화되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그 정신은 여전히 고귀하며, 또 당시에 땅과 가족을 떠나서 유리하는 농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여실히 알려준다. 그리고 농민들을 착취하는 세력들에게 대항해서 농민복지를 주창했던 의로운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려준다.

빛

농민들은 사회 구조적인 악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기근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인해서 끊임없이 어려움을 당했다. 그래서 농민들은 먹고살기에 그리 좋은 형편이 아니었고, 빚을 많이 지고 있었다. 당시에 농민들은 빚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하나님은 ‘면제년’을 제정하고 농민들의 부채탕감을 강력하게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매 칠 년 끝에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무릇 그 이웃에게 꾸어준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 해는 여호와와의 면제년이라 칭함이니라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네 형제에게 꾸인 것은 네 손에서 면제하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정녕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정녕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 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강박히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 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념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 칠년 면제년이 가까왔다 하고 네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 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네가 죄를 얻을 것이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와 네 손으로 하는바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는고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경내 네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신명기 15:1-11)

면제년과 희년 제도를 통해서 부채를 탕감하려는 노력들은 당시 농민들이 심각한 부채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며, 그들이 부채를 갚을 능력이 전혀 없었음을 말한다. 빚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야반도주를 해서 도시에 들어와 도시빈민으로 살거나, 아니면 자기 몸을 팔아서 종살이를 해야 했다. 이렇게 종으로 팔린 사람들은 제 능력으로 다시 자립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구약성경은 히브리인 종을 7년째 되던 해에 자유롭게 해주어야 하고,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육 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 칠 년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공수로 가게 하지 말고 네 양 무리 중에서도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 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 종 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네게 명하노라.....그가 육 년 동안에 품군의 값의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신명기 15:12-18)

그리고 돈을 빌릴 경우에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자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했다.

네가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지니 곧 돈의 이식, 식물의 이식, 무릇 이식을 낼 만한 것의 이식을 취하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네가 꾸이면 이식을 취하여도 가하거니와 너의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얻을 땅에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신명기 23:19-20)

먹고살기가 어려워서 돈이나 식물을 빌렸을텐데, 거기에 이자를 붙이면, 그들이 어떻게 돈을 갚을 수 있겠는가? 구약성경은 어려운 형편에 처한 사람이 돈, 즉 생계비를 빌리려고 할 때 그것을 거부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명령한다. 최소한의 생계를 지원하라는 명령인 것이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하루살기도 힘든 가난한 농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최소한의 삶을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어야 했다. 그래서 농민들이 생계

를 유지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했다.

사람이 멧돌의 전부나 그 윗쪽만이나 전집하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집함이니라

무릇 네 이웃에게 꾸어줄 때에 네가 그 집에 들어가서 전집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섰고 네게 꾸는 자가 전집물을 가지고 나와서 네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여든 너는 그의 전집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전집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네 의로움이 되리라 곤궁하고 빈한한 품군은 너의 형제든지 네 땅 성문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삷을 당일애 주고 해진 후까지 끌지 말라 이는 그가 빈궁하므로 마음에 품삷을 사모함이라 두렵건대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면 죄가 네게로 돌아갈까 하노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말며 과부의 옷을 전집하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일을 행하라 명하노라(신명기 24:6, 10-15, 17-18)

무슨 일이 있어도 생계를 위협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것은 소극적인 행동이지만, 적극적인 행동이 19-22절에 나타난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농산물을 남겨놓으라는 것이다.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 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떼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 두며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 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신명기 24:19-22).

쉽

한나 아렌트는 『인간의 조건』이라는 책에서 ‘노동의 절대화’를 말한다. 이것은 노동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오늘날에도 그런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많은데, 농경사회에서 농민들의 삶은 아주 열악했으며, 쉬임 없는 노동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수명도 짧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산업사회 이전 시기에는 출생하는 아이들의 거의 1/3이 여섯 살이 되기 전에 죽었다. 열 여섯 살이 되었을 때는 거의 60%가 죽고, 스물 여섯 살이 되었을 때는 75%가, 마흔 여섯 살 때는 90%가 죽었다. 3%만이 예순 살이 되었다. (Thomas F. Carney, *The Shape of the Past: Models and Antiquity* (Lawrence, KS: Coronado Press, 1975), 88. John Dominic Crossan, *The Historical Jesus: The Life of a Mediterranean Jewish Peasant*, 김준우 옮김, 『역사적 예수-지중해 지역의 한 유대인 농부의 생애』 (서울: 한국기독교연구소, 2000) p. 60에서 재인용.)

정말 뼈빠지게 등골이 휘도록 일한 것이다. 당시 농민들은 몸이 곱아서 제대로 살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평생을 쉬임 없이 일해야 하는 농민들이 전적인 쉬를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옛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쉼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정월 십 사 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 달 십 오 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칠 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칠 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제 칠 일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레위기 23:1-8)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말을 반복하는데,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것은 쉼 없는 농경사회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비롯한 여러 절기들을 정해놓으시고, 그 날에는 누구든지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다. 일하지 말고 쉬어야 한다는 것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다음 구절에서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칠월 곧 그 달 일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칠월 십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이 날에 누구든지 아무 일이나 하는 자는 내가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의 쉼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 달 구월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칠월 십오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칠일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칠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 팔 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레위기 23:23-36)

이처럼 하나님은 농부들이 아무 노동도 해서는 안 되는 날을 정하시고, 그 날에 쉬게 하셨는데, 사람뿐만 아니라 땅도 쉬게 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육 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육 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나 제 칠 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며 너의 곡물의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의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의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군과 너와 함께 거하는 객과 네 육축과 네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산으로 식물을 삼을지니라(레위기 25:1-7)

하나님은 인간과 아울러 땅도 안식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농경사회에서 땅과 인간은 결코 떼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땅을 쉬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확대하고 착취하는 것은 '땅의

안식년'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매우 불경한 행위임을 보여준다.

새 땅

쉽 없이 일함에도 불구하고 빛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고대 이스라엘 농민들이 바라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었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 때에 밭가는 자가 곡식 베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저희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하며 포도원들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아모스 9:13-15)

이스라엘의 유토피아는 자신들이 거주하는 땅에서 기근이 발생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사는 것이었다. 에스겔을 비롯한 예언자들은 귀환 이후에 그런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이 꿈꾸는 유토피아는 결코 땅을 벗어나지 않는다. 이사야가 말하는 새 하늘 새 땅은 모든 사람들, 특히 농민들이 이 땅에서 기본적인 행복을 누리며 사는 세상, 착취와 압제가 없는 세상, 바로 '농민유토피아'다. 그러니 이사야는 새 하늘 새 땅으로 이루어지는 농민유토피아를 대망했다고 말할 수 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 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

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 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한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가 아이였고 백세에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한이 나무의 수한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임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와의 말이니라(이사야 65:17-25).